Global Maritime Affairs & Fisheries Weekly

KMI

지구촌 해양·수산

제 350 호
2006. 12. 18

수산 · 환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Korea Maritime Institute)
(137-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7-4 Tel. 02) 2105-2740 / Fax. 02) 2105-2759

목 차 : 지구촌 이슈 / 주요뉴스와 분석 / 간추린 지구촌 소식

지구촌 이슈

일본,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관련 의식조사 결과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품유통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의식·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 조사는 2006년 7월 하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농림수산정보교류네트워크사업의 유통가공업자 모니터 중 2,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1,527명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결과임

전자상거래 이용자(예정 포함), 전체의 40% 차지

○ 전자상거래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고 싶다'와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를 선택한 응답자가 전체의 43.1%,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가 약 33.7%로 나타남

- 업종별 전자상거래 이용 실태('예정을 포함, 앞으로 실시하고 싶다'는 응답자 대상)를 보면 '식품제조업', '식품도매업' 및 '식품소매업'에서는 4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외식산업'에서는 30% 이하의 비중을 차지함

【 전자상거래 도입 실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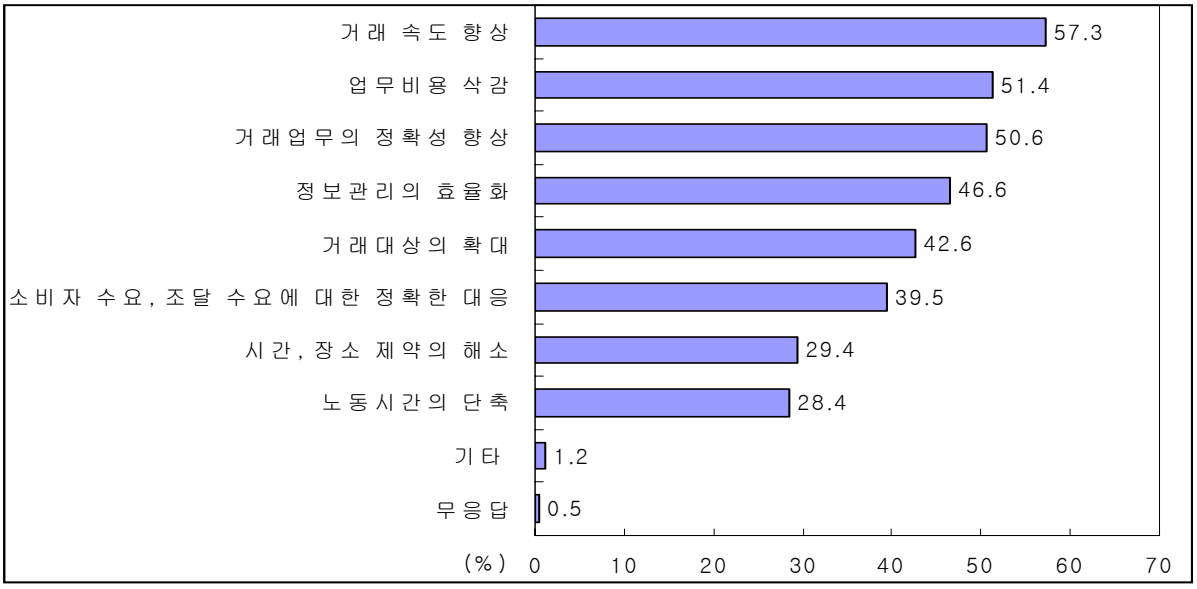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평 균	식품제조업	식품도매업	식품소매업	외식산업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고 싶음	31.8	42.7	34.5	33.8	15.3
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임	11.3	12.0	13.4	9.5	10.4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으나, 관심은 있음	33.7	30.0	32.0	32.5	40.9
앞으로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22.5	14.5	19.3	23.7	33.2
현재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두고 싶음	0.5	0.8	0.5	0.5	-
무 응 답	0.1	-	0.3	-	0.3

전자상거래 도입, 거래 속도 향상에 기여

○ 전자상거래 도입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가('예정을 포함, 앞으로 실시하고 싶다' 및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 대상)에 대해 '거래 속도 향상'을 선택한 사람이 전체의 약 57.3%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업무비용 삭감'과 '거래업무의 정확성 향상'도 5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효과(복수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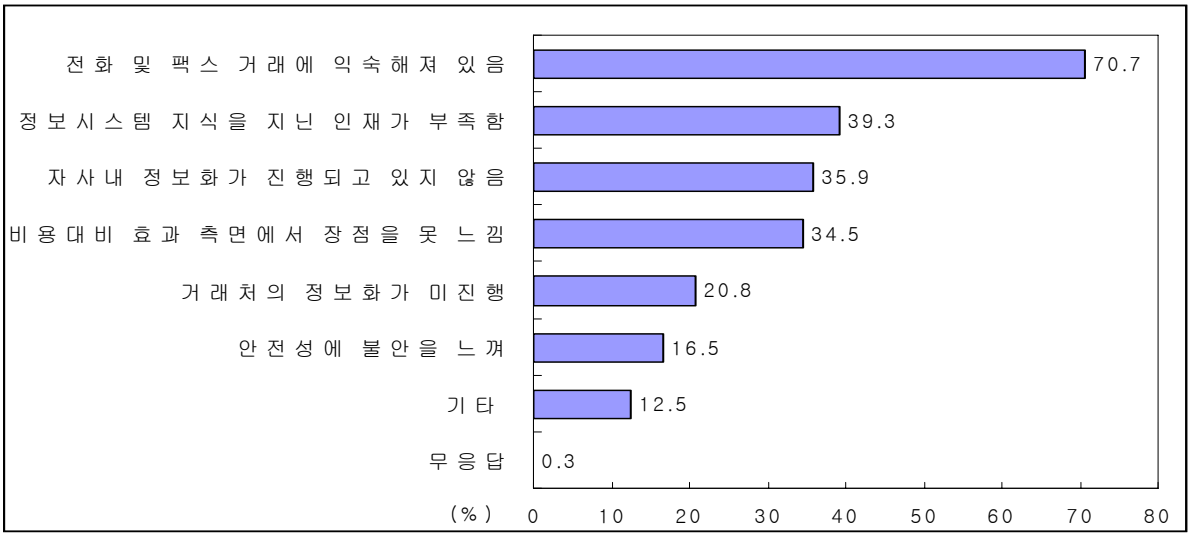
○ 전자상거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예정을 포함, 앞으로 실시다고 싶다' 및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 대상, 복수응답)에 대해 '정보시스템 등의 정비에 관련된 지원', '정보 시스템 등의 유지관리체제 정비', '정보시스템 등에 관련된 인재 확보·육성에 대한 지원'을 선택한 응답자가 모두 50% 이상을 차지함

전자상거래 미이용 이유, 기존거래 관행에 익숙해서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목적('현재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지만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 대상)은 '매수·매입 모두에 이용'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3.5%로 다수를 차지하였음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복수응답)로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거래에 익숙해져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0.7%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됨

【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신선냉장 EDI 도입, 관심은 높아

○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전자 데이터 변환의 약자로, 거래에 수반되는 다양한 정보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하며

- 신선냉장 EDI는 청과, 수산물, 화훼, 식육의 4개 식품분야의 거래에 있어 표준코드(상품코드), 표준메시지 등 사전에 정해진 표준적인 결정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것을 말함

○ 신선냉장 EDI의 도입의 경우 '예정도 포함, 앞으로 실시하고 싶다'는 응답자가 약 19.8%에 그친 반면,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으나,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가 약 38.7%로 관심도가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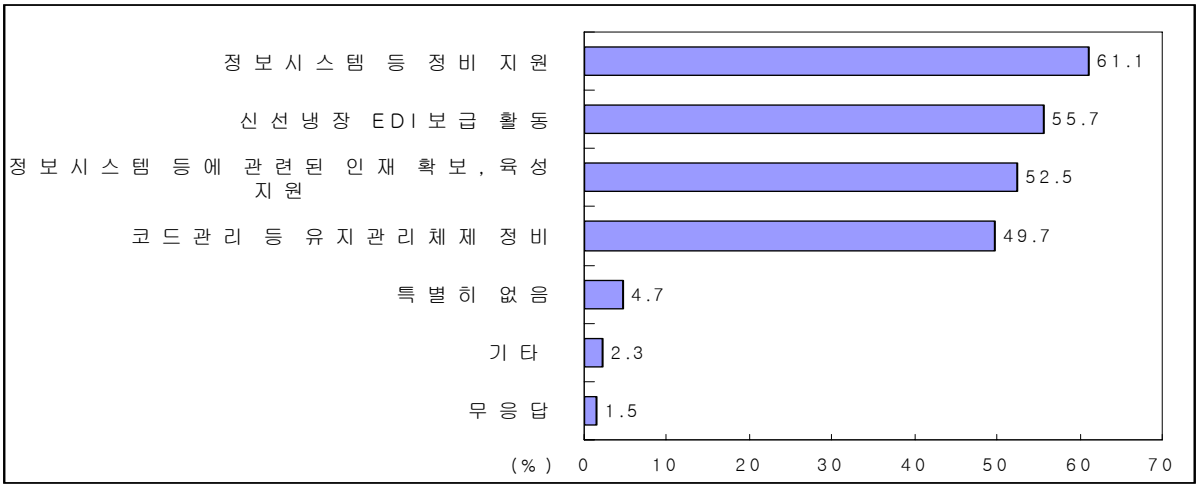
신선냉장 EDI 이용, 다양한 효과 기대

○ 신선냉장 EDI의 도입으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예정을 포함, 앞으로 실시하고 싶다', '앞으로도 실시할 예정은 없으나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 대상, 복수응답)에 대해 '거래업무의 정확성 향상', '정보관리의 효율화', '거래 속도 향상', '업무 비용 삭감'을 선택한 사람이 모두 50%로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선냉장 EDI 확대, 시스템 정비 지원과 보급 활동 필요

○ 신선냉장 EDI의 이용 확대에 있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예정도 포함, 앞으로 실시하고 싶다', '앞으로 실시할 예정은 없으나, 관심은 있다'는 응답자 대상)에 대해 '정보시스템 등의 정비에 관련된 지원', '신선냉장 EDI에 관한 보급 활동'을 선택한 사람이 약 6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신선냉장 EDI 이용 확대에 필요한 방안(복수응답)】



○ 신선냉장 EDI를 '이용하고 있으나 앞으로 관두고 싶다'는 경우와 '앞으로도 실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복수응답)를 조사해 본 결과,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화 및 팩스를 이용한 거래에 익숙해져 있다'를 선택한 사람이 48.9%로 다수인 것으로 조사됨

자료 : 농림수산성(2006. 10. 30)

<정명생, msjoung@kmi.re.kr>

주요뉴스와 분석

푸젠성, 對대만 수산물 교역 활발

○ 올해 8월에 푸젠(福建)성은 닝더(寧德)시 샤푸(霞浦)현에 대만산수산물집산(集散)센터를 건설하였는데, '녹색통로' 정책을 실시하여 대만산 수산물에 대해 24시간 검사제도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현재 대만산 수산물은 주로 푸젠성을 통해 수입된 후 다시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대도시로 유통되고 있음

○ 푸젠성은 또한 대만에서 40여 종의 우량 수산종묘를 수입하여 중국 최대의 대만산 수산종묘기지를 건설할 예정임

- 현재 20여 종의 대만산 수산종묘가 실용화되었는데, 주요 품목으로는 홍다리얼룩새우, Bidyanusbidyanus, 틸라피아, 전복 등임

○ 한편 2005년에 중국의 對대만 수산물 수출량과 금액은 각각 7만 7,715톤, 9,6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8.4%, 20.7% 증가하였고

- 수입량과 금액은 각각 3만 2,400톤, 2,1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76.5%, 2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이처럼 중국 정부는 여러 가지 특혜조치를 실시하여 대만과의 원만한 수산물 교역을 도모하고 있음

- 특히 전년도의 경우 수출입통계를 보면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이러한 對대만 교역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이은화, yhli19@kmi.e.kr>

일본 마루하·니치로, 수산분야 경영환경 급변에 대비 통합 결정

○ 수산업계 최대규모인 마루하(マルハ)그룹과 3위인 니치로(ニチロ)가 내년도 10월 1일자로 통합한다고 발표하였음

- 이는 대내적으로 핵가족화, 고령화의 진행으로 국내 수산물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어업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어가 상승, 원유가격의 폭등 등으로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규모 확대를 통해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결정된 것으로 풀이됨

○ 새롭게 출범하는 회사는 국내적으로는 상품 구색 확충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경영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 두 기업의 통합은 중복되는 사업부분이 그다지 많지 않아 상호 보완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특히 상품 구색이 대폭 증가하고 기업간 협력을 통해 상품 개발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해외기업의 합병·매수를 적극 추진하여 조달·생산, 가공, 판매를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 성장 여지가 있는 해외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통합의 성패가 달려있을 것으로 보임

○ 식품, 유통업계의 재편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매상고 1조 엔의 거대 수산계 그룹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 일본 내에서는 수산계 상위기업의 통합이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재편의 실마리가 될 것인가의 여부가 주목받고 있음

<임경희, imkh@kmi.e.kr>

필리핀, 핸드라인 어업(handline fishing)에 대한 특별법 발효

○ 필리핀 다랑어 어업단체들은 의회가 제안한 핸드라인 어업에 관한 특별법을 지지하였으며, 이 특별법으로 인하여 다랑어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말하였음

- 또한 다랑어 핸드라인너 연합회(Alliance of Tuna Handliners) 회장 인 다리오 라우론(Dario Lauron)은 새로운 특별법 제정으로 전통적인 어로 행위보다 핸드라인 분야와 소규모 어업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 강조하였음
- 현재 연합회 회원들은 2,500척의 배를 소유하여 최소 4만 명 이상의 어업인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일년에 약 3만 톤을 어획하여 9,118만 달러의 고부가가치 다랑어를 양륙하고 있는 상황임

○ 농업 및 식품 상원위원회(Senate Committee on Agriculture and food)에서 법률안이 승인된 후 지난주 월요일에 상원에서 이 법안이 채택되었는데

- 연합회 부회장 인 로저 림(Roger Lim)은 이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제까지 소외되었던 핸드라인 어업인들이 정부로부터 더욱 많은 관심과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어 이 법안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음
- 더욱이 필리핀은 미 국무부 산하 국제 개발청(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프로그램을 통해 2년 전부터 핸드라인 어업에 대하

여 지원을 받아왔음

○ 특별법 발효로 인해 다랑어 핸드라인 분야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심사를 해결해 줄 것이며 필리핀 다랑어 산업의 발전도 큰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지난 7월에 열린 다랑어 핸드라이너 수뇌회담(Tuna Handliners Summit)을 통해 다랑어 산업의 이해당사자 간 간격을 줄이며 산업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하여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하였음

○ 필리핀은 이제까지 영세한 핸드라인 어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나, 이번 특별법 발효로 인해 이러한 산업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필리핀은 업종별로 소득차가 존재하며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영세 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늘어나고 있는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방안을 모색 중임

<강형덕, thymos@kmi.re.kr>

미국 어업 규칙 개정안 통과, 향후 고갈 어종의 어획 및 거래 금지

○ 미국 의회는 지난 12월 9일 어업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규칙에 따라 2년 6개월 내에 고갈 어종을 과잉 어획하거나 이를 거래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됨

- 어업 규칙 개정은 의원들이 과잉 어획과 해저 서식지 파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와 어업인 그리고 레크레이션 어업인간의 화해와 타협이 있었기 때문임
- 이번에 개정된 규칙은 기존의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 보호 및 관리법(Magnuson-Stevens Fishery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ct)을 더욱 강화하는 성격을 띰

○ 개정된 어업 규칙에 따라 미 북동 지역의 넙치 자원 회복계획 기간을 종전의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렸으며 2007년 넙치 어획량을 1,700만 파운드로 정하였음

- 또한 어업 관리자는 자원회복계획과 관련한 해양 과학적 권고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 같은 어업 자원회복 계획은 미 행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올해 초 부시 미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과잉어획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도 있음

○ 미 행정부의 관심 속에서 어업자원회복계획이 추진되며, 그 일환으로 과잉어획을

금지하고, 과잉어획된 어종이 거래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미국내 뿐만 아니라 향후 수산물의 국제 교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소비되는 수산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 수산물로 충당하고 있는 미국이 자원 고갈 어종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향후 수입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 자국 어업인의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국제 사회 및 수입국에게도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한 자원회복계획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원 관리와 관련한 국제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정명화, jmh@kmi.re.kr>

간추린 지구촌 소식

중국 농업부, 전국적인 수산물 안전성 검사 실시

○ 중국 농업부는 신정과 설 명절 동안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전국을 대상으로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특히 최근의 중국 터봇 사건과 홍콩 쏘가리 사건 등 안전성과 관련하여 약품 사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임

중국, 가공수산물 고가품으로 발전

○ 최근 중국의 가공수산물은 저가품에서 고가품으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인데

- 예전에 어분으로 가공한 수산물을 어육으로 가공하여 어묵제품을 개발하였고, 또한 기존의 오징어채, 어포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고가품으로 재가공하였으며
- 새우, 게, 어란 등을 가공하여 웰빙식품 또는 미용식품으로 개발하였음

후베이성, 수산물 수출 20% 증가

○ 올해 후베이(湖北)성의 수산물 수출금액은 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늘었는데, 이는 농수산물 수출금액의 5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후베이성은 올해 수산물 생산량이 약 330만 톤으로 중국에서 내수면수산물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임

홋카이도산 연어가격, 대유럽 수출 증가로 가격 인상

○ 홋카이도(北海道)산 가을연어의 산지가격이 자국내 재고 감소와 수산물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있는 유럽에 대한 수출 증가로 작년도 대비 약 30% 증가하였음

- 하코다테(函館) 세관에 따르면 홋카이도에서 수출되는 냉동가을연어의 90% 이상이 중국용이며, 중국에서 절단육 또는 3매 절단으로 가공되어 유럽으로 출하되는 것으로 알려짐

UN, 저인망류 어업 규제 결의 채택

○ UN 총회 본의회는 8일 해양생태계가 처해있는 위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지 않은 해역내 저인망 조업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2008년 말까지 강구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음

- 결의는 저인망류 어업의 규제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따른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 등 저인망류 어업이 실시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대비책 마련에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임

태국, 세계 수산물시장에서 우위 점하려고 노력 중

○ 태국 정부는 세계 수산물 시장에서 더욱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이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한 정보를 자국 수산물 수출업자들과 생산업자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음

- 태국 당국자들에 의하면 자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수산물에 대해 높은 경쟁력을 가진 나라이며, 특히 신선냉장·냉동 새우, 캔 새우, 캔 다랑어 같은 상품에 대한 수출 전망이 밝다고 말하였음

베트남, 수산물 품질관리에 정부 개입

○ 베트남에서는 오염된 수출 수산물에 대한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들의 미흡한 대처로 결국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으며

- 정부는 항생물질과 살균제 잔류량을 EU와 미국보다 1% 이상 더 낮게 규제하는 강력한 새로운 법규를 시행하려 함

러시아, 2006년 어업 생산량 작년에 비해 1.1% 상승

○ 러시아의 올 1월부터 11월까지의 어업 총 생산량은 약 300만 톤으로 지난해의 297만 톤에 비해 약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EEZ를 포함한 러시아 수역 내에서 생산된 어업량은 약 225만 톤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 증가한 것인데, 이는 전체 생산량의 약 75%를 차지하는 것임
- 이 중 올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어종은 밴댕이(5,900톤), 고등어(17,500톤), 청어(18,900톤) 등임

미국 알래스카 어업, MSC 재인증 절차 중

○ 미국의 알래스카 연어 어업은 MSC 재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걸치고 잇는데, 알래스카 연어 어업은 지난 2000년 최초로 MSC 인증을 받은 이후 5년 만에 인증을 갱신하는 것임

- 현재 인증을 받기 위해 예비 검토를 마친 단계이며, 알래스카 주 어업부(Fish and Game Commercial Fisheries)의 덴비 로이드 국장은 재인증 결과에 대해 낙관하고 있음
- 알래스카 주에서는 연어 이외 베링해 명태, 태평양 넙치, 검정대구, 베링해에서 연승으로 어획한 태평양 대구 등이 MSC 인증을 받았음

미국 메인주, FDA의 새로운 라벨링 규칙에 반발해

○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알래스카 명태나 기타 흰살생선 등으로 만든 연육제품에 대해 '색깔, 맛 등 크랩, 바닷가재, 가리비를 따라한 것이다(imitation)'라는 것을 라벨에 기재하도록 한 방침에 대해 메인주(Maine) 관계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음

- 관계자들은 "imitation"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라벨에서 해당 단어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미국 국립어업협회(National Fisheries Institute, NFI)는 지금의 라벨 변경은 시기상조라며 시행 연기를 위해 FDA에 로비를 펼치고 있음